

리하다. 그와 같은 자연조건이 모스크바의 발전을 촉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모스크바는 평균 해발고도 120m의 지점에 위치하여, 모스크바강의 3단의 하안단구(河岸段丘), 남서부의 '레닌 구릉(丘陵)'이라고 불리는 해발고도 250m 정도의 고지, 동부의 저지, 북부의 구릉 사면 등 기복이 많은 지형 위에 시가지가 확대·발달되어 있다.

Red Square



러시아의 붉은 광장은 다갈색의 포석(鋪石)이 깔려 있으며,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100m, 길이는 500m 가량이다. 남동단의 화려한 바실리블라제누이 성당(16세기), 크렘린 쪽의 레닌묘, 북서단의 역사박물관 등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과 유명한 굽 백화점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15세기 말부터 크렘린 정면의 광장이 되었으며, 차르의 선언이나 판결, 포고가 내려지던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상업광장·화재광장 등으로 불렸다가 17세기 말부터 '아름다운(크라스나야)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크라스나야에는 '붉은'이라는 뜻도 있다). 현재 메이데이 등의 시위행사나 사열식이 행해진다.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은 전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총체이다.

이 작은 성채는 모스크바 공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에 따라 몇 개의 석조 건물을 지닌 백색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발전하였고 이반 3세에 이르러서는 통합된 러시아의 수도로써 강력한 모스크바의 권력을 반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쳐 오늘날의 크레믈린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크레믈린의 건설 과정은 러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 자체가 러시아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서구와 동양의 중간지점에서 그 둘의 특성을 자신의 풍토에 맞게 적절히 합한 것이라면 건축에 있어서 비잔틴 정교 사원의 건축적 특성과 서구의 후기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건축의 특성이 이루어낸 성과가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이기 때문이다.

2003년 정기총회 (47기)



이현구 회장 취임사



총회 기념촬영